

22. 2015년 인삼 재배 기간 중 농업 이외에 다른 소득 활동을 하였습니다か?

① 예 (활동 내역 :) ② 아니오

☞ 농업 이외 소득 활동 예시 : 임금 근로자, 주말농장 사업 등

-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-

나. 느타리버섯 농가 자료 구축 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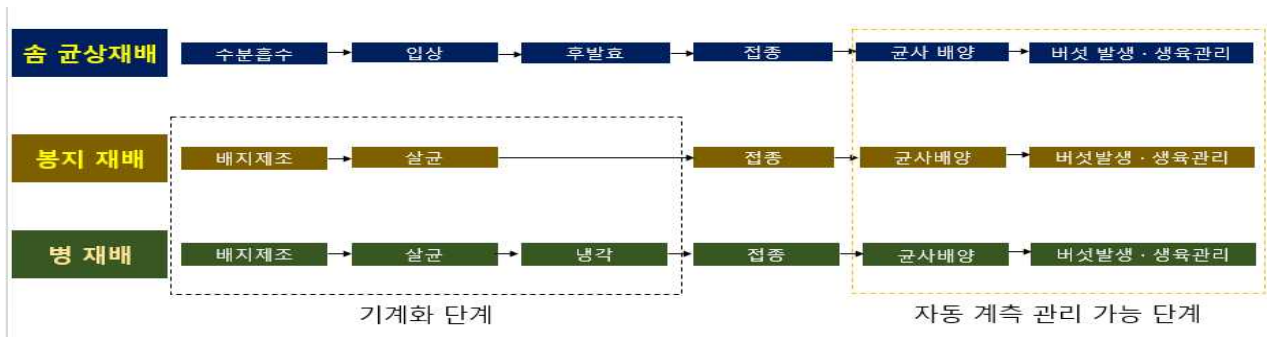
느타리버섯 농가 경영효율성 관련 이슈는 다음과 같고, 개발문항은 <표 3-6-14>에 정리하였다.

이슈 1. 콜드체인 구성 : 느타리버섯은 4℃-8℃ 정도에서 유통 및 보존되어야 외관상 품질과 영양소가 유지가 높게 유지되어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 유통 가능기간은 20℃에서 3주간이며, 운송에는 평균 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(박윤문, 전창성(2010)). 이와 관련된 정책으로 지자체 단위에서 지원하는 느타리버섯 재배농가 포장유통 지원 사업이 있다.

이슈 2. 영농일지 효과 : 영농일지 작성 시 비효율적인 투입요소들의 파악이 용이하기 때문에(고종태 외, 2011) 영농일지 작성을 통해 체계적인 경영 관리로 경영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.

이슈 3. 영농기술교육의 효과 : 느타리버섯 재배 시 단계별로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 숙련을 요구하는 단계가 있다(예: 종균 및 배지제조 단계 등). 지역 농업기술원 등을 통한 교육이나 지원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. 관련 정책으로 농어업 기술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다.

이슈 4. 기계화·자동화 효과 : <그림 3-6-1>과 같이 재배단계에서 이산화탄소, 온도, 습도 등의 측정과 조정을 자동화한다면,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다. 인력이 필요했던 배지제조와 살균 단계를 기계화하여, 인건비를 경감하고, 생산비 요소 중 경감 가능 요인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.



<그림 3-6-1> 느타리버섯 재배단계별 기계화·자동화 가능단계